

CEO Report

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

천지연·한진현·권순일

01호

2025.02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또한, 대형 재보험사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 비중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 이후 요율인상과 인수조건 강화로 합산비율이 안정화되는 등 시장 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2025년 재보험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본고에서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시의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글로벌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자 함

우선,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및 중산층 증가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도시화 집중은 재해, 폭동 발생 시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기술집약적 장치의 확산으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따라 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보장 격차 축소 및 위험 측정 방안을 모색하고, 자연재해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 발생 예측 모델링 기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영역과의 협업도 필요해지고 있음. 디지털화·시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시의 응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보험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 랜섬웨어, 기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주요 재보험사들의 합산비율 관리 강화 및 클레임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손실 증가 등은 하드마켓 지속 요인으로, 자본확충 및 거래량 증가, 재보험 공급 확대 등은 소프트마켓 전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2025년 재보험시장은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 요인이 혼재하는 전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재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I

글로벌 재보험시장 현황

- 2023년 글로벌 재보험시장 규모(보험료 기준)는 약 3,785억 달러로, 최근 5년(2018~2023년)간 연평균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함
 - 재보험사들의 신규 위험 인수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에 따라 재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연평균 성장률 3.2%) 대비 비교적 크게 성장하였음
 - 재보험 출재율은 2018년 4.4%에서 2023년 5.3%로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출재율은 생명보험 3.4%, 손해보험 6.5%로 손해보험 시장의 출재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1〉 원보험 및 재보험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성장률
원보험료	6,149,020	6,292,600	6,291,834	6,860,598	6,772,753	7,186,174	3.2
재보험료 ¹⁾	268,060	311,588	347,699	385,696	363,477	378,543	7.1
출재비율 ²⁾	4.4	5.0	5.5	5.6	5.4	5.3	-

주: 1)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43개 글로벌 재보험사 실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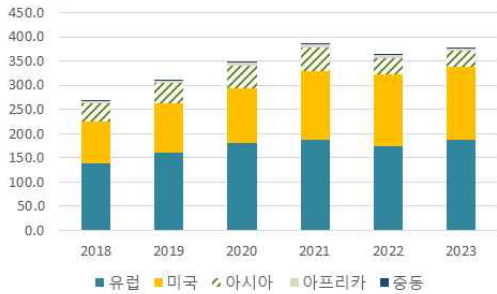
2) 글로벌 원보험료 규모 대비 재보험료(143개사) 비율로 계산한 추정치임

자료: Atlas Magazine(2025)

- 글로벌 재보험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주요 시장의 비중이 더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글로벌 재보험시장 지역별 규모는 로이즈(Lloyd's)를 포함한 유럽 1,864억 달러, 미국 및 버뮤다 1,522억 달러, 아시아 324억 달러 수준으로 유럽 및 미국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재보험시장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은 유럽, 미국이 각각 6%, 12%로 크게 성장한 반면, 아시아는 3.5% 감소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의 합이 83.5%에서 89.4%로 확대됨
 - 한편, 2018년 대비 2023년 비중은 유럽(51.4% → 49.2%)이 현재 가장 큰 수준이나, 미국 및 버뮤다 지역(32.1% → 40.2%)이 크게 성장하면서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됨
 - 같은 기간 아시아(14.4% → 8.6%)는 IFRS17 도입, 통화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근 비중이 크게 감소함

〈그림 I-1〉 글로벌 재보험시장 지역별 규모(보험료)

(단위: 백만 달러)



주: 유럽, 미국 등 세계 143개 재보험사 실적 기준임
자료: Atlas Magazine(2025)

〈표 I-2〉 글로벌 재보험시장 지역별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럽(27)	51.4	48.6	47.8	49.2
미국/버뮤다(39)	32.1	36.5	40.9	40.2
아시아(22)	14.4	13.1	9.2	8.6
아프리카(48)	1.7	1.4	1.6	1.5
중동(7)	0.4	0.4	0.5	0.5
합계(143)	100.0	100.0	100.0	100.0

주: ()안은 통계에 포함된 재보험사 수를 의미함
자료: Atlas Magazine(2025)

○ 글로벌 재보험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형 재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 비중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2000년 이후 5대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10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60%를 상회함
 - 5대 재보험사 시장점유율: 17%('80) → 41%('00) → 47%('20) → 42%('23)
 - 10대 재보험사 시장점유율: 22%('80) → 55%('00) → 68%('20) → 61%('23)
- 또한 자연재해 리스크 증가에 따른 손해보험 시장 성장이 지속된 결과, 2023년 손해 및 생명보험 재보험료 규모가 각각 2,791억 달러 및 995억 달러로, 손해보험 비중이 73.7%까지 증가함
 - 손해보험 비중: 67.7%('20) → 68.5%('21) → 70.6%('22) → 73.7%('23)

〈그림 I-2〉 글로벌 재보험시장 시장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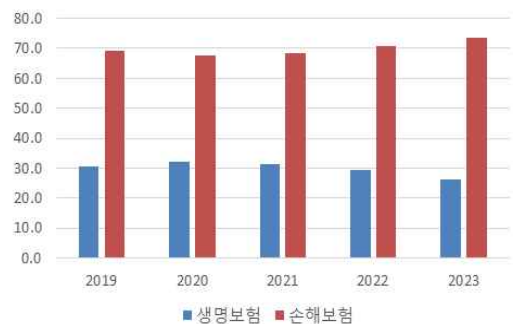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tlas Magazine(2024)

〈그림 I-3〉 글로벌 재보험 생명·손해보험 시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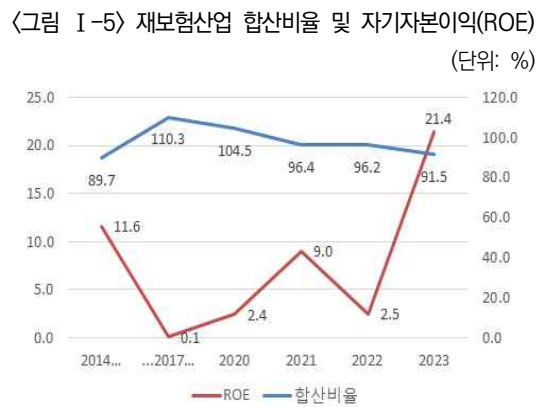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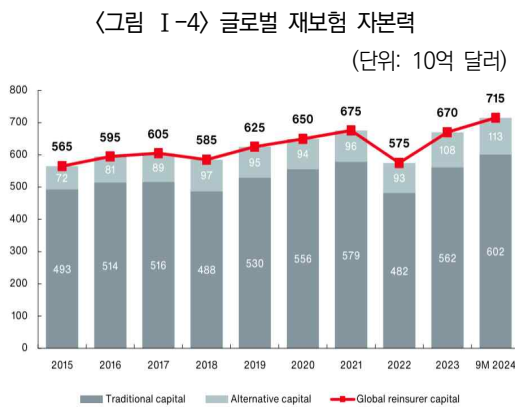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tlas Magazine(2025)

○ 손해율, 투자수익률, 경쟁 상황 등에 따라 언더라이팅 사이클이 교차하는 재보험시장은 2020년 이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17년 이후 미국의 대형 허리케인(마리아, 이르마, 하비 등) 및 코로나19 등으로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였으며, 하드마켓(Hard Market)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2021년 이후 요율인상과 인수조건 강화에 따라 합산비율이 안정화되었으며, 대체재보험(Alternative Risk Transfer)을 포함한 재보험시장의 담보력 확충, 양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재보험 요율과 인수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함



자료: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Aon's Reinsurance Solutions, Aon Securities Inc.(Aon(2025) 재인용)

자료: Atlas Magazine(2025)

○ 2025년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담보와 시를 포함한 사이버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 2025년 1월의 미국 LA 지역의 대형 화재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이버 리스크 증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도 손실 확대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2025년 글로벌 보험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자 함

- 글로벌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시의 확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이슈별 보험산업에의 영향 및 위험 요인을 살펴볼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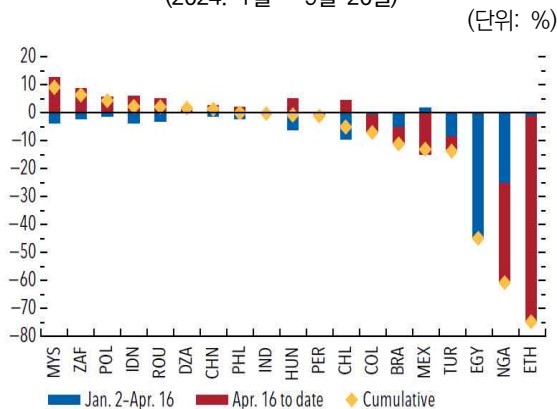
II

주요 이슈

1. 경제·사회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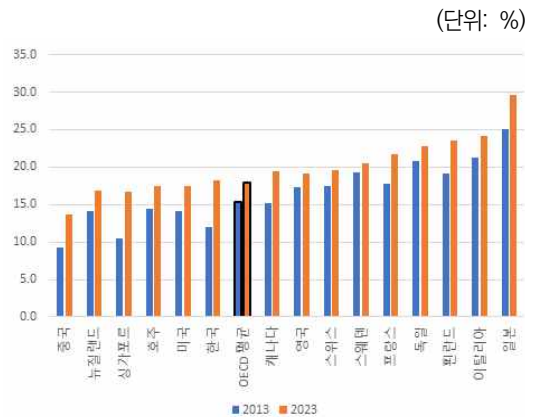
- 2025년 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이 2%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IMF 2024)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부 신흥국의 경우 높은 외환 변동성 및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투자환경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음
-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 및 아시아 신흥국 경제 개발에 따른 중산층 증가 등에 따른 보험 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대수명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중국,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상당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보험 수요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시아는 전 세계 생명보험 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바,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험 수요 변화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Zaki 2024)

〈그림 II-1〉 미 달러 대비 신흥국 환율변동 (2024. 1월 ~ 9월 20일)



주: (-) 값이 클수록 달러 대비 절하(약세)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IMF(2024)

〈그림 II-2〉 국가별 노인인구 비율



주: 중국, 싱가포르 및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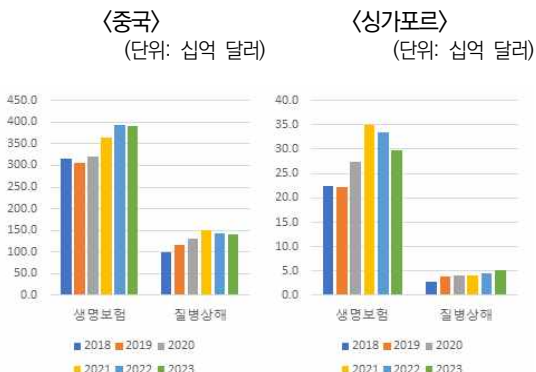
○ 아시아 지역의 보험 수요 변화로는 건강보험, 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의 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아시아의 고령화 및 중산층의 증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기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명보험, 연금 및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은퇴-저축 갭(Retirement saving gap; 필요저축수준과 실제저축수준의 차)의 상승은 개인수명 증가, 의료비 상승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개인 퇴직연금, 저축성 보험 마련이 중요해짐
 - Swiss Re는 전 세계 의료비 관련 지출이 연간 6.4%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분석함(Zaki 2024)
-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국 및 싱가포르의 연금 및 저축성 보험 중심의 생명보험 시장 성장률은 각각 4.3%, 5.9%, 질병·상해·건강보험 시장 성장률은 각각 7.4%, 12.6%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도시화의 증가 및 클레임 인플레이션(Claims Inflation)¹⁾ 등은 보험회사 손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위험관리 및 통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도시화로 자동차 및 건물이 집중되어 재해 발생 시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커지며,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지붕 교체 비용 상승 등 기술집약적 장치 증가로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7월 이탈리아 대류성 폭풍 손실 추정치가 초기 예상보다 약 3배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파악의 어려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비용 상승 등이 지목됨(Swiss Re 2024b)
-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파업, 폭동 및 시민폭동(St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SRCC)에 따른 보험사고 건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셜미디어 및 도시화는 SRCC에 따른 손실 규모 확대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Swiss Re 2024a)

〈그림 II-3〉 중국 및 싱가포르 보험시장별 규모 추이



자료: AXCO

〈표 II-1〉 폭동으로 인한 보험 손실 추정치

사건	연도	보험 손실 추정치
프랑스 폭동	2023년	7억 3,000만 유로
남아프리카 폭동	2021년	370억 남아공 랜드
콜롬비아 폭동	2021년	1억 5,000만 달러 미만
미국 폭동	2020년	20억 달러 이상
칠레 폭동	2019년	30억 ~ 40억 달러
볼리비아 폭동	2019년	1억 6,700만 달러
홍콩 폭동	2019년	1억 달러
프랑스 폭동	2018년	2억 1,700만 유로

자료: Pande(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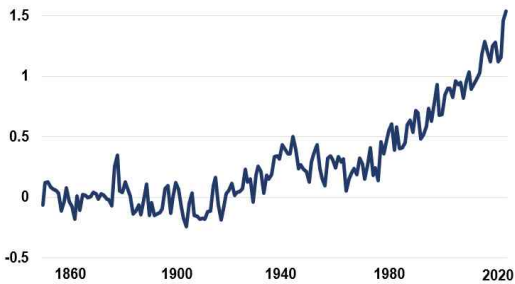
1) 클레임 인플레이션(Claims Inflation)이란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품목 및 보험산업과 관련된 모든 품목의 품질 변화까지 반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함

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2024년 1~9월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4℃가량 상승하여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보임(WMO 2024)
- 최근 극한적인 날씨에 대하여 기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기상원인규명네트워크(World Weather Attribution Network; WWA)는 표면온도 상승이 소말리아의 3년간 가뭄 직후 폭우, 캐나다 산불, 밀턴·헬렌 등 허리케인, 유럽 내 폭염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함(WWA(2023. 12. 22), "Climate change fuelled extreme weather in 2023; expect more records i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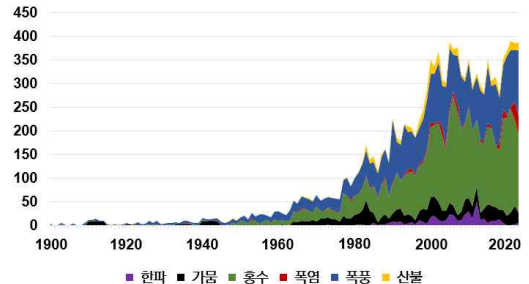
〈그림 II-4〉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추이
(단위: °C)



주: 2024년은 1~9월 기준임. 위 수치는 1850~1900년대 평균 기온 대비 상승 폭임

자료: HadCRUT5 데이터(<https://www.metoffice.gov.uk/hadobs/hadcrut5/data/HadCRUT.5.0.2.0/download.html>)

〈그림 II-5〉 전 세계 자연재해 빈도수
(단위: 회)



주: 1900~2023년 자료이며 2000년 이전 데이터는 일부 자연재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EM-DAT 데이터(<https://www.emdat.be>)

○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 위험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장 격차 (Protection gap)가 작지 않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보장 격차가 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연간 3천~4천억 달러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피해액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33.5%), 유럽(26.7%), 아시아(19.0%) 순으로 나타남(Gallagher Re 2024a)
- 전체 피해액 중 60~70%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프라 및 자산이 축적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보장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보장 격차가 32%로 가장 낮지만, 유럽은 75%, 특히 아시아는 92%로 대부분의 피해액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

○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Primary perils(규모가 크고 빈도가 적은 재해)보다 Secondary perils(규모가 작고 빈도가 잦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함

- 보험 손실의 대부분은 미국(66.1%)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유럽(19.1%), 아시아(4.4%) 순임 (Gallagher Re 2024a)
 -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에 의한 손실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재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Swiss Re(2024. 12. 5), “Hurricanes, severe thunderstorms and floods drive insured losses above USD 100 billion for 5th consecutive year, says Swiss Re Institute”)
- 최근 수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Secondary perils 증가가 주된 이유로 보임(Aon 2024)
 - 특히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토네이도(Severe Convective Storms; SCS)의 영향이 심화되었는데, 2000~2022년 평균 240억 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엔 700억 달러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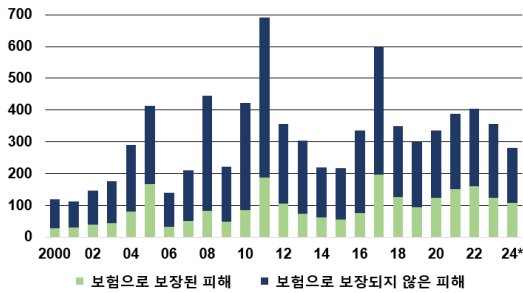
○ 자연재해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 축적과 모델링 수정 등을 통하여 정확한 위험 측정 및 가격 책정을 도모해야 함

- 최신 기후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기상 현상이 초래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2023년 7월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대류성 폭풍에 의한 예상 손실 추정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음(2023년 9월: 22억 달러 → 2024년 6월: 60억 달러; Swiss Re 2024b)
- 기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데이터공유 플랫폼, 실시간 위성사진 등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각 회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빈도수가 증가한 홍수의 경우, 실시간 위성사진을 통하여 피해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미래 홍수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적절한 가격 책정을 도모할 수 있음(Sielker 2024)
 -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현실적 재난 시나리오(Realistic Disaster Scenarios)의 품질이 향상되면 예상 손실액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Primary perils의 발생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Secondary perils 또한 같이 고려하는 등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모델링 기법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2) Primary perils에는 열대성 저기압(‘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으로 불림), 지진, 온대저기압(‘유럽 폭풍’으로 불림)이 포함되며, Second perils에는 대류성 스톰(‘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등으로 불림), 홍수, 산불, 한파, 가뭄 등이 속함. Primary perils의 경우 피해가 아주 심각하여 Peak perils라고도 불리며, 반대로 Secondary perils는 Non-peak perils라고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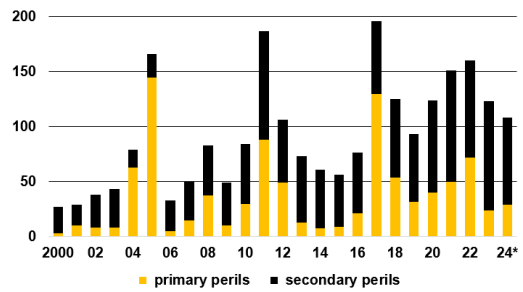
- 기존 Primary perils의 경우 재해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주로 가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Secondary perils의 경우 재해 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Aouad 2024)

〈그림 II-6〉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단위: 십억 달러)



주: 2024년은 1~9월 기준이며, 금액은 2023년 환산 기준임
자료: Gallagher Re(2024a; 2024b)

〈그림 II-7〉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액
(단위: 십억 달러)



주: 2024년은 1~9월 기준이며, 금액은 2023년 환산 기준임
자료: Gallagher Re(2024a; 2024b)

○ 한편, 자연재해 및 재난의 경우 대규모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영역과의 협업도 필요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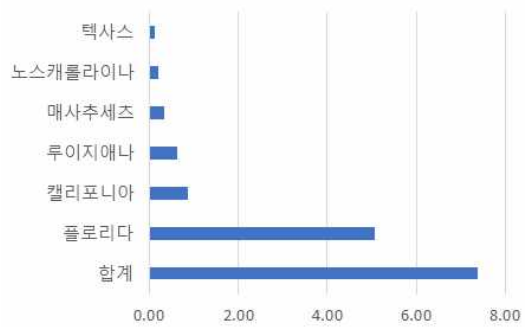
- 위험이 큰 지역은 사전에 재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등 공적 영역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예를 들어, AXA XL Re(2024)는 재해 대비 투자 금액이 1달러 증가하면 피해 금액이 16달러가 감소한다는 분석을 통하여 재해 피해와 보장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 대비 투자를 제시함
 - 축적된 데이터로 재해 위험 분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공적 영역과 함께 재해를 대비해 나감으로써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및 보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역대 가장 큰 보험 손실을 기록한 산불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 미가입, 보장한도액, 보장하지 않는 손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보험 손실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이 요구될 수 있음
 - 2025년 LA 산불의 경우 750억 달러의 보험 손실(Insured loss)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 경제적 손실은 950억~1,64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음(UCLA 2025)
 - 미국의 주정부 및 민간 보험회사들의 협력으로 설립된 FAIR(Fair Access to Insurance Requirements) 플랜의 경우 산불, 허리케인,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고위험군에게 기본적인 보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2〉 주요 산불사고의 보험 손실액(1991~2025년)
(단위: 십억 달러)

산불	연도	보험 손실액
LA(Palisades) Fire(미국)	2025년	75 ^E
Camp Fire(미국)	2018년	12.2
Tubbs Fire(미국)	2017년	10.9
Woolsey Fire(미국)	2018년	5.1
Oakland (Tunnel) Fire(미국)	1991년	3.8
Atlas Fire(미국)	2017년	3.7
Horse Creek Fire(캐나다)	2016년	3.7
Maui/Hawaii Fire(미국)	2023년	3.5

주: 보험 손실액은 2023년 기준 환산금액임
자료: Aon(2024); UCLA(2025)

〈그림 II-8〉 2023년 FAIR 플랜 주별 보험가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III)

3. 디지털·AI 도입 확산

○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응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특히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및 딥러닝 등의 AI 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활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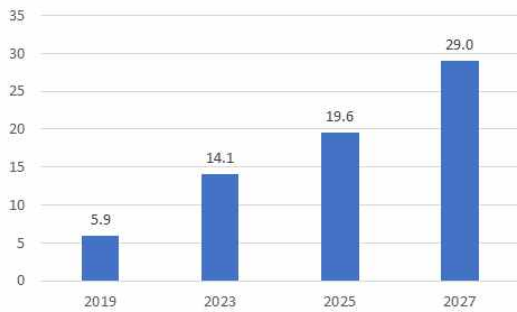
○ 보험회사들은 머신러닝, 웨어러블, 텔레메틱스 등 다양한 기술을 보험상품 및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고객의 건강정보나 운동 습관 등의 건강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별 사망률과 질병률을 진단하는 등 리스크 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고객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있음
 - John Hancock와 Manulife의 경우 웨어러블 장치를 활용하여 건강 목표 달성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생성형 AI는 챗봇, 초기 청구보고서의 생성, 특정 리스크(예: 자연재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생성, 보험 사기 탐지 등에 사용되고 있음

○ AI 활용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보험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 랜섬웨어, 기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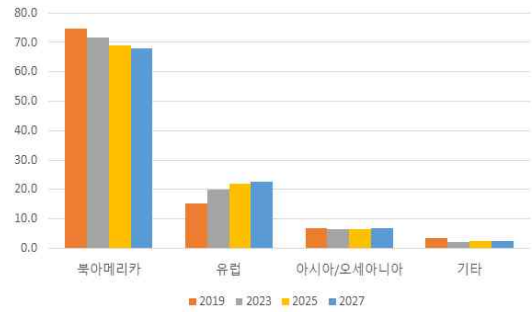
- 전 세계 사이버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9년 59억 달러에서 2023년 14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2027년까지 290억 달러로 그 규모가 다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SIRC 2024)
- 특히, 2023년 북아메리카 지역의 사이버보험 시장 비중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2027년까지 유럽, 아시아 등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당 보험시장이 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짐
- 글로벌 보험산업은 랜섬웨어 보상만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보험이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함(Beazely 2024)

〈그림 II-9〉 전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Zurich and Marsh(SIRC 2024(2024) 재인용)

〈그림 II-10〉 글로벌 지역별 사이버보험 시장 비중
(단위: %)



자료: Zurich and Marsh(SIRC 2024(2024) 재인용)

III

전망

- 2025년 글로벌 주요 재보험사 투자수익률 목표는 2024년과 비교 시 다소 낮은 수준이나, 손해보험 재보험 합산비율 기준 손실 대비 수익은 높게 설정함
 - 2024.1/4~3/4분기 Munich Re, Swiss Re, Hannover Re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3.6%, 3.9%, 3.1%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목표치는 3.0~3.2% 수준임
 - 글로벌 주요 재보험사들의 손해보험 재보험 합산비율은 2024.1/4~3/4분기 83~93%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목표치는 79~88%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비용 대비 수익 목표를 지난해 대비 높게 설정함

〈표 III-1〉 글로벌 주요 재보험사 실적 및 2025년 전망

(단위: %)

구분	투자수익률		손해보험 재보험 합산비율 (Property&Casualty Re Combined Ratio)	
	2024.1/4~3/4분기	2025년 목표	2024.1/4~3/4분기	2025년 목표
Munich Re	3.6	3.0	83.0	79.0
Swiss Re	3.9	-	92.8	85.0
Hannover Re	3.1	3.2	87.9	88.0

자료: Munich Re(2024), Swiss Re(2024d), Hannover Re(2024)

- 한편, 2025년 1월 재보험계약 갱신에서는 몇 년간 지속된 가격 상승 이후 처음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Howden 2025)
 - 글로벌 재물-대재해(Global property-catastrophe), 재물 재재보험(Property retrocession), 글로벌 원수 및 임의(Global direct and facultative) 재보험의 경우 각각 8%, 13.5%, 12.5% 요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자연재해 및 사이버 리스크 증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보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요국 금리 인하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정 등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이나 폭동과 같은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면서 재보험사의 위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2025년 1월 팰리세이즈(Palisades) 등 고급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LA 산불의 보험 손실이 약 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재보험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이버보험은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거대손해 초래 가능성 등으로 재보험을 이용한 위험 분산이 중요하여, 재보험 출재비율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표준화된 리스크 관리기법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 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위험 분산 및 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이버보험의 재보험 출재비율은 손해보험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40% 수준으로 알려짐(IAIS 2023)
- 2025년 재보험시장은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 요인이 혼재하는 전환 국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수익보다는 합산비용 관리 강화, 클레임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손실 증가 등은 하드마켓 지속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본확충, 거래량 증가,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을 정점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 하드마켓에서 소프트마켓으로 점진적인 재보험시장의 사이클 변화 가능성도 혼재함
 -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환경에 따른 종목별,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 Aon(2024), "Climate and Catastrophe Insight"
_____(2025), "Reinsurance Market Dynamics"
- Aouad(2024), "Is global warming shifting the diversification paradigm?", *SIRC Daily*, 4 Nov 2024
- Atlas Magazine(2024), "Reinsurance Special 2025 Renewal", Nov 2024
_____(2025), "Reinsurance Special 2025 Renewal", Dec 2024
- AXA XL Re(2024), "Optimising Disaster Recovery"
- Beazley(2024), "Risk&Resilience in a Time of Change: Singapore Snapshot Report"
- Hannover Re(2024), "Quarterly Statement as at 30 September 2024"
- Howden(2025), "Past the pricing peak", Feb 2025
- Gallagher Re(2024a), "Natural Catastrophe and Climate Report: 2023"
_____(2024b), "Natural Catastrophe and Climate Report: Q3 2024"
- IAIS(2023),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GIMAR)", April 2023
-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 Policy Pivot, Rising Threa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t 2024
- Pande(2024),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Exploring solutions to proactively manage heightening risk", *Insights&Knowledge*, Swiss Re, Mar 2024
- Sielker(2024), "Using data to push back against Europe's rising flood threat", The Insurer from Reuters, Baden-Baden 2024
- SIRC 2024(2024), "'Urgent' Need To Close Global Cyber Insurance Protection Gap", Re in Asia, 2024
- Swiss Re(2024a),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Exploring solutions to proactively manage heightening risk", *Insights&Konwledge*, Swiss Re
_____(2024b), "Tackling the toxic loss creep issue in European NatCat events"

UCLA(2025), “Economic Impact of the Los Angeles Wildfires”, UCLA Anderson Forecast
WMO(2024), “State of the Climate 2024”, Update for COP29
Zaki(2024), “Demographic shifts create challenges for life and health”, *Asia Insurance Review*, Nov 2024

OECD 홈페이지

AXCO 홈페이지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III) 홈페이지

저자약력

천지연 연구위원 / 농업자원경제학 박사

한진현 연구위원 / 경제학 박사

권순일 연구위원 / 경제학 박사

CEO Report 2025-01호

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979-11-93021-64-4

